MY **BRIGHT** FUTURE

동서대-동아대가
연합대학으로
출발합니다

글로컬대학 30 선정

부산의 미래성장과 함께하는 개방형 연합대학

- 문화콘텐츠 아시아 No.1의 확고한 기반 마련
- 국내외 유명 전문가와 현장에서 배우는 필드캠퍼스
- 동서대-동아대 비교우위를 활용한 연합교육 실시
- 연합대학의 특성화 분야 전공 신설 및 운영

미래형대학 **동서대학교** 이런 대학 없습니다

DSU Dongseo University 동서대학교

Copyright. Busan Metropolitan City

권두칼럼 나침반을 잃은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
동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선정 의의와 사업 내용
특별기획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
지역연구 특집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추진
전문가의 눈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한일관계 평가 및 제언
한일新시대포럼 한일관계의 '희망'이란?
Dongseo News 동서대학교 소식 2024년 7월~12월
부산의 공기업 부산환경공단
CEO 포커스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명사 에세이 신의 한 수
포토 에세이 대연동
WORLD '발트3국'과 한국, 그리고 부산
역사산책 유행가로 들려주는 부산의 역사
부산 스토리텔링 보리전 마을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김문홍 작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의구 ㈜코스모스마리타임 회장

地域社會 지역사회

2025년 1월
제6권 1호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

사진제공: 씨네21

地域社會 | 제6권1호 | 발행일 2025년 1월 6일 |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Dongseo News

동서대학교 소식 2024년 7월~12월
(PP. 118~123)

地域社會
지역사회 | 통권 제6권 1호

CONTENTS

006 **권두칼럼**
나침반을 잃은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 장제국

008 **동서대학교 [글로컬대학30] 선정 - 의의와 사업 내용**
특성화·국제화의 30년 결실…문화콘텐츠 분야 Asia No.1 도약 조대수

COVER STORY 커버스토리

015 **특별기획 : 한국 영화의 거장, 임권택 감독**
임권택 감독-한국 영화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개척한 독창적 선구자 김대승
임권택 감독, 제자 김홍준·김대승 감독과 대담하다 강동헌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설립 이끈 장제국 총장 인터뷰 손현석 & 강동헌
영화평론가 시각 : 한국적인 것 또는 'K-시네마'의 독보적 프런티어 장병원
임권택 감독과 부산 : 임 감독의 시선을 통해 재발견되는 부산 김정선
영화과 교수와 졸업생 감독 정지혜, 권하정, 손경원 좌담 이무영

055 **지역연구 특집 :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추진**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특별법' 내용과 진행 상황 이준승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부산항 국제물류전략 김근섭
글로벌허브도시를 향한 부산 금융산업 육성 전략 안순구
글로벌허브도시 첨단산업 육성 위한 과제 원광해
글로벌허브도시 해외 사례 벤치마킹과 제언 하경준
귀화 전문가 보는 '부산의 국제화' 현실과 대책 로이 알록 꾸마르

098 **전문가의 눈**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한일관계 평가 및 제언 조양현

104 **부산-후쿠오카 포럼 : 기조강연** 이희섭

111 **한일新시대포럼 : 한일관계의 '희망'이란?** 후지이 미치히코

118 **Dongseo News**
동서대학교 소식 2024년 7월~12월

124 **부산의 공기업 : 부산환경공단**
쾌적한 '저탄소 그린도시' 부산 조성에 앞장서는 환경전문 공기업 안종일

131 **부산의 포럼 : 21세기 미래포럼**
정치·경제·문화 분야 등 전문가 초청·토론 통해 해법 제시 우길상

139 **CEO 포커스 : 이수태 ㈜파나시아 회장**
'세상에 없는 원천기술'로 친환경·에너지 설비 분야 글로벌 강자로 우뚝 장지태

地域社會 지역사회
통권 제6권 1호
발행인 장제국
편집인 장지태
발행일 2025년 1월 6일
(매년 1월, 7월 발행)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주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921호
Tel 051) 320-1909
Fax 051) 320-1691
E-mail pusamo21@dongseo.ac.kr
인쇄처 굳디자인연구소
인쇄인 김경리

이수태 회장

강의구 회장

151 **명사 에세이**
신의 한 수 김은태

156 **포토 에세이**
대연동(大淵洞), 평화의 큰 못이 되다 정대현

164 **WORLD**
'발트3국'과 한국, 그리고 부산
소수민족 애환 딛고 부활 '날개'…부산과 교류 확대 바람직 이상금
리투아니아와 동서대학교
리투아니아 국립대와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파트너십 활짝 김희경

174 **역사산책 : 부산의 역사 현장 7**
격동의 시절, 유행가로 들려주는 부산의 역사 류승훈

180 **부산 스토리텔링 9 : 보리전 마을**
보리전으로 가는 길 이미욱

186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9 : 김문홍 작가**
"희곡, 소설, 동화에서 독자가 오래 기억해 줄 작품 한 편씩 남기고 싶어" 이성규

194 **어떻게 지내십니까 : 강의구 ㈜코스모스마리타임 회장**
'해양수도 부산' 만드는 데 시민의 힘과 정성 모아야 김용성

200 **편집인 칼럼**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장지태

202 **편집후기**
地域社會(지역사회) 제6권 1호를 펴내며

싱가포르, 홍콩 등 선도 금융중심지 벤치마킹 역외금융시장 활성화, 해외자본 유치 박차를

안순구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연구팀장

1.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및 발전 현황

첨단산업, 물류와 함께 금융중심지 육성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실현의 핵심이다. 부산은 2009년 해양과 파생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문현금융단지에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과 함께 금융중심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 금융중심지 조성과 육성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해외 금융자본이 몰리는 런던, 뉴욕과 같이 각 국가가 자국에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고자 특정 지역 및 도시를 지정하여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런던금융특구 소재 컨설팅 기관 Z/Yen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금융중심지(Financial Centre)를 육성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와 같은 도시들이 선도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추가로 자국 도시인 칭다오(中), 선전(中), 오사카(日), 홋카이도(日) 등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부산은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들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부산의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보면,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2014년 부산 남구 문현동에 국제금융센터가 준공되며 본격적으로 금융중심지를 활성화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센터로 이전했으며, 그 결과 현재 국제금융센터에 37개의 금융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다.

특히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왔는데 2014년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협력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개소하였고, 한국해양진흥공사도 2018년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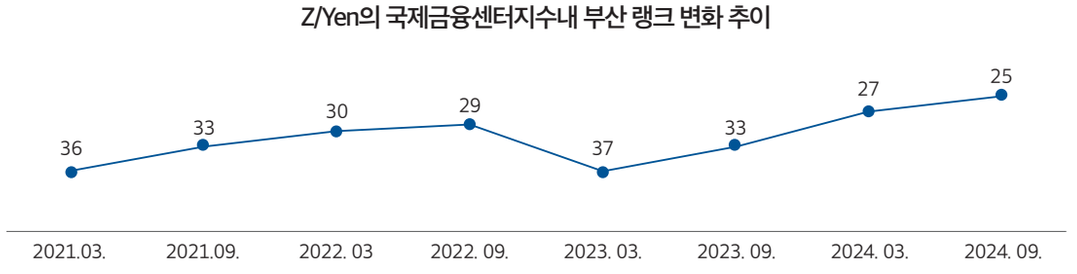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발전으로 세계에서 바라보는 부산 금융중심지에 대한 평가는 꾸준하게 상승추세이다. 런던금융특구에 소재한 씽크탱크 기관인 Z/Yen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GFCI)에 따르면 부산은 21년 전후로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36번째 국제금융센터지수 런칭행사에서 부산의 금융중심지 세계랭킹은 25위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이 부산 금융중심지의 꾸준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국제적 스탠다드의 글로벌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주로 지목되고 있는 한계점은 국내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금융중심지가 조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제금융 및 민간금융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주요 인프라 발전

2009년	2014년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2018년	**2025년**
문화시설(호텔·박물관 준공)	디지털밸리(D-valley) 준공 예정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2. 국제 금융중심지의 정의 및 주요 특징

이제 국제금융중심지 조성과 육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금융중심지는 국제금융자본과 금융기관들이 집적하는 장소로서, 국제금융자본의 유입과 유출, 그리고 활발한 거래가 주요 특징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금융자본(Cross-Border Finance)의 약 30% 상당이 금융중심지에 의해 중계되고 있다. 국제금융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주요 금융산업은 아래 표와 같다. 국제금융중심지들에서는 국제금융자본이 대개는 현지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유입된 금융자본을 보관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손쉽게 한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중심지 제공 주요 금융산업

은행업 (대출)	보험	자산 관리	금융산업 지원 (회계, 세제)	기업 등록

국제금융중심지들을 타입(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70페이지 표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신흥금융중심지들의 경우 국제금융자본의 적극 유치를 위해 역외금융중심지 혹은 특화금융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대조되게 자국 내수산업에 기반한 금융중심지를 역내금융중심지라고 부르며, 대표적인 사례가 오사카이다.

국제 중심지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 발전을 띄고 있으나 공통으로 중심지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해외

자본의 유출입과 거래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육성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해외투자자들의 거래를 촉진하는 역외금융 시장을 조성하였다.

역외금융시장이란 국내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되는 시장으로 비거주자들이 자국 통화가 아닌 외국환을 매개로 거래하는 시장을 지칭한다. 역외금융시장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비교적 자율화된 시장으로 해외 금융 수요자와 공급자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수요-공급자의 금융중심지 유입을 촉진한다. 수요 및 공급자 참여 촉진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는 허브 생태계 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손꼽히고 있음에 따라 역외금융시장이 주요 전략으로 적용되고 있음이 분석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1968년 역내-역외금융계정(ACU-DBU Divide)을 구별하여 역외금융시장을 출범하였다. 역외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1968년부터 당국의 다양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1968년 금융기관의 역외금융 활동에 대해 자국의 외환 규제를 면제하였으며, 이자수익에 대한 10% 원천세를 폐지하였다. 인지세, 채권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과해 국제자본의 유치를 유도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외환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20% 보유해야 했으나 1972년부터 면제하였다. 1973년부터는 역외금융 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삭감하였는데 기존에 부과되었던 법인세 40%를 10%로 축소하였다.

금융중심지 종류(타입)

금융중심지 종류	내용	금융중심지
종합금융중심지 (글로벌금융 허브)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금융기관과 국제금융자본 유치 및 거래 활성화	런던, 뉴욕, 싱가포르, 홍콩
역외금융중심지	국제금융자본 유입, 유출, 운용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여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며, 조세회피처라고도 불림	케이만제도, 바하마, 저지,두바이
특화금융중심지	특정금융섹터를 집중 육성(예: 룩셈부르크의 자산운용산업)	룩셈부르크
역내금융중심지	자국 산업발전과 함께 성장 국제금융운용은 제한적	오사카

글로벌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선도 금융중심지 공통 추진전략

공통전략	명목세율은 높은 반면 국제자본·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구현 ①역외금융시장 조성 ②자산운용 활성화 ③주요 금융중심지와의 연대 가속화
역외금융 시장조성	**일본 :** 내수산업을 보완하는 금융산업을 조성하였으나, 1980년대 국제금융(대출, 채권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일본역외금융시장(JOM)을 조성 **싱가포르 :** 역외금융시장 조성(ACU-DBU Divide 정책, 1968년)과 함께 법인세 인하로 해외 금융기관 및 국제자본 유치 **홍콩 :** 중국의 관문으로서 위안화 금융시장(예금, 대출, IPO) 육성 **룩셈부르크 :** 위안화 금융 시장(채권 및 대출) 적극 육성
자산운용 활성화	**일본 :** 자산운용 활성화를 위해 2014년 NISA 계정 도입 **싱가포르 :** 집합투자기구제도 도입으로 자산운용시장 적극 육성(패밀리오피스, VCC 제도 등) **룩셈부르크 :** 자산운용시장 육성(집합투자기구와 지주회사 세제혜택) **아일랜드 :** 비거주자 대상 펀드 세제 혜택 부여
금융중심지 연대 가속화	**일본,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아일랜드** 주요 역외금융중심지에 대한 감세가 가능한 조세조약 체결로 금융중심지간 국제금융자본 이동 용이

싱가포르의 역외금융시장의 성장 추이

(단위: 백만 $USD)

연도	ACU참여 금융기관	ACU 규모 (자산 및 부채)	자산		부채	
			비은행권 대상 대출	Interbank Funds	비은행권 예금	Interbank 예금
1968	1	30	1	29	18	
1969	11	123	1	120	98	1
1970	16	390	14	370	244	5
1971	21	1,063	189	851	238	14
1972	24	2,976	601	2,331	399	27
1973	46	6,277	1,214	4,962	913	115
1974	56	10,357	2,629	7,528	1,614	212
1975	61	12,597	3,303	9,098	2,068	235
1976	69	17,354	4,060	12,931	1,976	327

출처: MAS Quarterly bulletin, various issues; Zoran(1978)

둘째,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지주회사 등 자산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다른 금융중심지와의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세 감소는 자금의 유입-유출이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는 제도로서 국제금융자본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 애플, 구글 등 다국적기업들이 최근까지 조세조약을 기반으로 수익금을 역외금융중심지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일랜드 금융중심지의 경우 다양한 IT기업들이 운영수익을 이전하여 발전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세조약은 역외금융시장 조성과 같이 특정 금융중심지에 금융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진입장벽 완화에 공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는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제자본 유치를 가속하였다. 특히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제도와 배당소득세 면제로 해외투자자들의 싱가포르 현지 펀드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투자

아일랜드 소재 펀드 등록 추이

아일랜드 펀드 산업 현황과 세제 혜택(2023년 기준)

총 펀드규모	아일랜드 소재	역외 등록(Non-domiciled)
13,677개 $6.1 조달러	8,870개	4,807개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아일랜드 펀드 운용으로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아일랜드 펀드 총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면제 (이자 및 배당금) 비거주자 로열티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면제 (특허는 20% 부과)	

출처: irishfunds.ie

자들에게 싱가포르 금융중심지는 펀드 조성을 위한 '도관(Conduit)'으로 고려되고 있고, 이러한 펀드들의 80%가 타국에 투자되고 있다. 이렇듯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주요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별도의 세제 혜택도 조성하였다. 패밀리오피스와 가변자본기업(VCC)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싱가포르 소득세법(Singapore Income Tax Act) Section 13에 따라 13O와 13U로 구분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이 충족될 시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국제금융자본 유치를 위해 비거주자와 해외투자자에 매력적인 조세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 펀드 운용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하고 있어, 해외투자자들의 펀드 유치를 위한 조세제도로 손꼽히고 있다.

셋째, 주요 금융중심지와 연대 가속화를 공통으로 추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국가 간 이중과세방지조약(Double Tax Treaty)을 체결하여 국경 간 자본 이동 시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감세를 기반으로 각국과 주요 금융중심지 간의 연동성을 가속하였다. 이와 같은 조약은 다른 금융중심지로부터 자국의 금융중심지로 국경 간 자본 이동을 용이하게 했다.

3.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과제

위와 같이 선도 금융중심지들의 공통적인 추진 전략을 참고하면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도출된다. 이러한 전략들은 부산의 지정학적 위치와 금융중심지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서울을 종합금융중심지로, 부산을 해양과 파생금융 특화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였다. 이와 같은 지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선박금융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생태계가 집적됨에 따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부산을 서울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금융중심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서울의 금융 생태계는 향후 계속된 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부산의 경우 서울 생태계를 모방하기보다는 보완적 생태계를 조성하여 확장하는 전략의 타당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방안은 부산이 표방하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와 유사한데 이들 금융중심지는 모두 국제자본을 유치하고 이에 기반하여 성장한 사례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에 국제금융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활성화되어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전략을 아래와 같이 구상해 보았다.

부산 글로벌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전략 제언

구분	금융허브 육성 전략
역외금융시장 조성	역외금융시장 해외금융기관 참여확대 검토 역외금융시장 금융기관 세제혜택 적용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 원천세 면제
자산운용 활성화	집합투자기구 및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 적용
주요 금융중심지와의 연동 가속화	주요 금융중심지와 국제금융자본 교류를 위해 주요 원천세 (배당, 이자, 로열티) 징수에 대해 부산특화 제도 구현 추진

자료: 필자 구성

첫째, 부산에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금융중심지의 사례와 같이 역외금융시장(Offshore Market)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앞서 기술했듯 싱가포르의 경우 1968년부터 역외금융시장을 조성하고 국제자본을 유치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자금처로서 운영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에 중국의 역외금융중심지로서 해외 투자자들이 펀드를 설립하고 중국에 직접투자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의 경우 런던 및 유럽에서 태동하여 국제자본들이 특정 국가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외환 등 금융 거래를 하는 시장이며, 국제금융중심지의 주요 특징으로 고려되었다.

주변 금융중심지의 발전 사안과 경쟁을 감안해 부산도 역외 집합투자기구(펀드)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등 민간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역외금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1988년부터 마련하였다. 1988년 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역외 계정의 설치 및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에서는 역외금융을 제도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으나, 부산에 역외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거주자 예금에 대한 이자 비과세 법안을 개정 및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기술했듯 홍콩의 비거주자 예금에 대한 원천세 부과로 해외 투자자들이 싱가포르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홍콩의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홍콩은 1980년대에 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폐지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정기외화예금에 대해서만 이자 원천세를 면제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이 고려된다.

둘째, 다른 금융중심지와 견줄 수 있는 자산운용 제도 마련과 구현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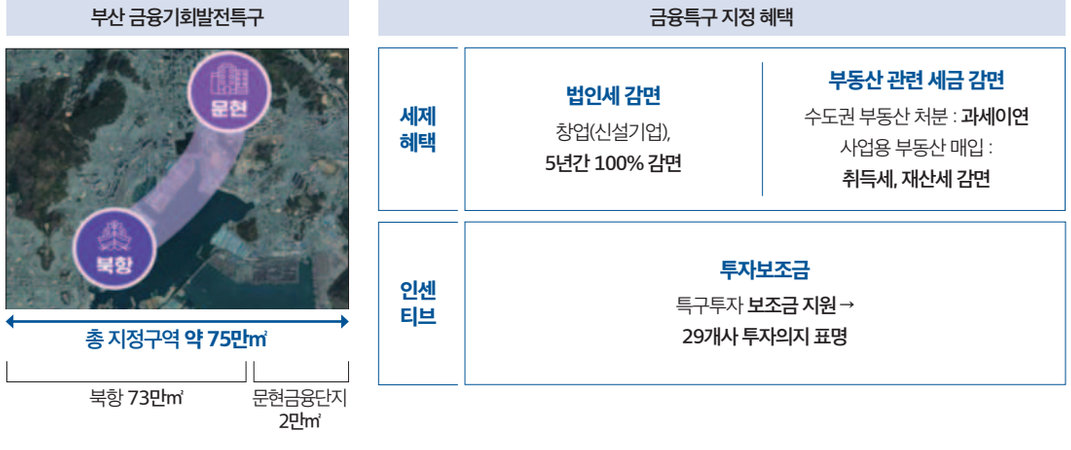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홍콩이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주회사와 집합투자기구 활성화로 해외금융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시사하였듯 각 금융중심지들은 펀드와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관련 제도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산운용 관련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추세지만 싱가포르 및 홍콩과 견주어 볼 때 시장 규모에 대한 성장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등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 및 소재지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지주회사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역외 및 역내 금융시장을 동시에 조성하고, 이러한 국제금융 자본을 대외로 손쉽게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기술했듯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의 경우 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 혜택을 부여하여 국제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아 역외금융중심지인 케이맨 제도를 위협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선도 금융중심지와의 연동 가속화로 주요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등 금융중심지들은 상호 간의 조세조약 체결을 기반으로 각종

부산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세제 혜택



원천세에 대해 저세율을 부과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해외금융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있으며, 상호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금융중심지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각종 원천세 등 부산 금융중심지만의 과감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제도 마련을 위해 학계, 산업, 정부,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되며, 부산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좋은 기반이 되고 있다.

부산은 전국에서 최초로 24년 6월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어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제도가 개선되었다. 대표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며, 이전기업에 대한 부동산 처분 및 매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특구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미 29개 사가 투자의사를 표명한 상태이다. 금융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향후 과제로 선도 금융중심지(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와 견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과감한 전략 추진을 위해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자본과 해외금융기관, 다국적 핀테크 들이 계속 유입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부산의 도약을 기대한다.

안순구 프로필

2023년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서 부산국제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한 금융 생태계 발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런던 Bayes Business School(City, University of London)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울산과학대학교 글로벌경영 전임 조교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지속가능금융분과장으로 재직했다.

혁신기업들 투자유치 기반 조성이 가장 중요 산업·문화 복합인프라 구축, 대학혁신도 필수

원광해 부산테크노파크 글로벌허브도시산업육성TF팀장

들어가며

최근 저출생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이슈가 꽤나 진지하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경쟁력을 자랑하던 부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자리, 청년인구 유출 등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미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을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글로벌 허브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이 지향하는 글로벌허브도시는 전 세계의 기업과 자본, 사람이 모여드는 글로벌 경제거점 도시이자, 세계인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글로벌 생활환경 도시이다. 물류와 금융, 디지털·첨단산업의 3대 분야의 글로벌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교육, 생활, 문화·관광 분야 등 글로벌 생활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글로벌 허브 전략의 수립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부산을 남부권 혁신의 거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된다. 전략 기반의 미래 인재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새로운 경제혁신거점 조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1. 글로벌허브도시 왜 필요한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왜 필요할까? 부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이자 물류 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허브도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은 단순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경제와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 국제 물류와 해양 중심지 : 국가 경제의 중심 역할 강화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동북아와 세계를 잇는 주요 물류 거점이다. 이를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키면 국제 무역과 물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글로벌 해양 도시로 도약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신산업 및 혁신 경제 육성 :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글로벌허브도시는 첨단 기술과 혁신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부산은 스마트 물류, 친환경 에너지, AI,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산업을 유치·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물류와 스마트 항만 구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 경